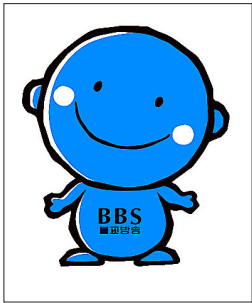


BBS 방송캐릭터 '보리' 선보여

창사 25주년 앞두고 방송포교 강화 다짐

BBS 불교방송(이하 BBS)이 2015년 창사 25주년을 앞두고 방송포교강화를 다짐하며 방송캐릭터를 제작 발표했다. BBS의 방송캐릭터 '보리'는 천진동자를 단순화한 형태에 불교기의 색깔(정, 황, 적, 백, 주황)을 기본으로 하여 '합장한 보리', '카메라 감독 보리', '연꽃부처님 보리', 'I♥BBS 보리', '묵묵한 안은 보리'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BBS의 방송캐릭터 '보리'

캐릭터 이름인 '보리'는 4월부터 불교방송 전직원의 공모를 통해 후보를 정하고 5월 중순 일주일간의 이메일 투표를 통해 전체 25%의 지지를 받아 결정됐다. 캐릭터 이름을 공모하자 불교방송 본사 및 전국의 지방사에서 직원들이 80개가 넘는 이름을 응모하고 자신이 응모한 이름을 홍보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보리는 BBS의 대표 캐릭터 이름으로 잘 어울리며 불자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릭터 디자인은 부다 일러스트 회장의 운영자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심현용씨가 맡아 6개월간 작업했다.

BBS는 앞으로 방송캐릭터 '보리'를 방송과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기존 불자들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들에게까지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꽃신 DIMF 창작지원 뮤지컬로 선정

7월 4일~6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소재로 다룬 뮤지컬 '꽃신'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하, DIMF) 창작지원작(DIMF—Musical Seed)으로 선정돼 공연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주)뮤지컬 꽃신이 주최하고 나눔의 집이 함께하는 이 공연은 강효성 서범석 윤복희 김동현이 배우로 선정되었으며 7월 4일~6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공연된다.



'꽃신' 프리뷰 공연 장면

5월 26일 씨네코드 선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DIMF는 "Musical Seed에 선정된 네 개의 프로그램에는 공연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고 그 중 우수 공연으로 선정된 공연에는 5천만원 이상을 지원 다음 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도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뮤지컬 '꽃신'은 결혼을 앞둔 17살 순옥과 그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다. 뮤지컬 '꽃신'은 별도 공익법인을 만들어, '나눔의 집'과 함께 전국 공연을 시작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우리춤의 아버지 '한성준' 140돌 기념공연

일제강점기에 전국을 유랑하며 체득한 100여 종의 전통춤을 집대성했던 '우리춤의 아버지' 한성준(1874~1941)을 조명하는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이 열린다. 한국문화유산기념사업회(회장 성기숙)는 6월 12~15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그의 탄생 140돌을 기념하는 제1회 전통무용제전 '위대한 유산, 한성준의 춤'을 연다.

이 시대의 대표적 무용수들이 출연하는 개막공연에는 이애주 '태평무', 김매자의 '살풀이춤', 조흥동의 '한량무', 국수호·이정윤의 '용호상박' 등의 무대가 마련된다.

또한 정승희 김숙자 채삼목 김정녀 박재희 이은주 김은이 백현순 윤미라 박은영 김정화 배상복 김선미 김명호 김용철 등 원로부터 중견 무용수들이 한성준의 춤세계를 되살린다.

한성준은 1930년대 후반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해 후진을 기르고 전통춤을 무대양식화한 '근대 전통무악의 거장'이 기도하다. 오늘날 전통춤을 대표하는 승무·태평무·살풀이춤·학춤·한량무·훈령무 등을 창안한 전통예인이다 창작곡이었다.

정혜숙 기자

찬란했던 차문화 역사 한자리에

경기박물관 '한국 차문화 대전'

초의 스님의 진영과 추사 김정희 초상화 등 우리 차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경기도박물관(관장 이원복)이 8월 24일까지 특별 전시 '한국 차문화 대전-차향에 스민 치유의 미학'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경기도박물관은 우리 차문화와 관련된 그림, 전적, 도자 등 다양한 유물을 전시한다.

경기박물관은 "경기도박물관의 소장유물뿐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전국 주요 박물관에서 출품한 차문화 관련 유물 200여점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설명한다.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쫓는 효능이 있어 글공부와 깊은 사색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합했기에 문인과 스님들이 주로 차를 마셨다. 조선 후기에 차를 두고 문인과 스님들이 펼쳤던 토론과 사색은 유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이와 관련한 초의 스님의 <동다송>, 황윤석의 <이재나고>, 박영보의 <다다방서>, '정약용이 쓴 편지' 등이 전시된다.

또한 차를 통해 교류한 다산 정약용(1762~1836)과 추사 김정희(1786~1856), 초의 스님(1786~1866)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조선 전기 이후 위축되어 있던



초의선사 진영(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1865년 이후)

초의 진영, 추사·다산 초상화 송광사 응진당 심육나한도 등 7·9종자·경기도유형문화재 제192호인 '요지연도', 이원복의 '산정일장' 등이 소개된다.

우리의 차문화를 회복시키려고 힘썼던 다산(茶人)으로 유명하다. 초의 스님이 그렸다고 전하는 '정약용 초상', 허련의 '추사 김정희 초상', '초의 선사 진영'이 기간을 나누어 차례로 교체 전시된다.

모임과 잔치, 종교와 산수화병풍 속에 드러난 차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차는 즐거



추사 김정희 초상



송광사 응진당 심육나한도 중 7,9종자

운 모임이나 잔치 때 마시는 귀한 음료로, 흥겨운 잔치를 그린 그림에는 꼭 다양한 종류의 차그릇이 그려져 있다. 또한 도교에서 차는 신과 만나는 중요한 매개체로, 불교에서는 수행을 위한 약으로 여겨졌다. 보물 제1367호로 지정된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송광사 응진당 심육나한도 중 제 7·9종자',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92호인 '요지연도', 이원복의 '산정일장' 등이 소개된다.

이밖에도 우리 차문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백제시대의 유물에서부터 통일신라의 차사발, 고려의 청자 차그릇, 조선의 백자와

분청사기 차그릇이 함께 소개된다. 대표 전시품으로는 백제의 돌잔, 계수호, 경주 안압지 출토 '차(茶)글씨'가 쓰인 토기 사발, 청자 차주전자, 청자 국화무늬 차잔과 받침, 백자 차주전자, 바위에서 자라는 대나무를 그린 백자청화 차잔 등을 만날 수 있다.

한편, 6월 20일에는 우리나라 차문화 전반에 관한 학술심포지엄도 개최된다. 방병선(고려대 교수), 박동춘(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이원복(경기도박물관 관장), 김성환(경기도박물관 학예팀장) 등이 발표에 나선다. (031)288-538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예술의 총체' 영산재... 6월 6일 봉원사에서 시연

세월호 희생자 위한 특별제단과 축혼 의식 마련

불교계의 대표적 종합 공연예술인 영산재(靈山齋) 시연회가 현충일인 6월 6일 태고종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인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서 여러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펼친 <법화경> 설파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지난 2009년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불교 음악인 범음법패(梵音梵唄)에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 무용적인 요소, 부처님 보살의 모습을 그린 괘불, 감로명화 등 미술적인 요소가 더해져 불교예술의 결정판으로 꼽힌다.

영산재 총본산인 봉원사는 매년 단오절마다 영산재 시연회를 해오다 2007년부터는 호국영령들의 혼을 기리기 위해 날짜를 현충일로 바꿨다. 특히 제 26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위령곡을 위한 특별 제단과 축

혼 의식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영혼을 모셔오는 의식, 영혼이 불법을 듣기 전에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 등에 이어 괘불을 영산재 장소에 옮겨 모시는 괘불이동(掛佛移運) 의식이 펼쳐진다.

이후 영산재에 참석한 대중이 공양물을 나눠 먹으면서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는 의식, 부처를 공양하고 법문을 듣는 의식, 영혼을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의식 등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2014 영산재추진위원회 대외장인 영산재보존회 회장 마일운 스님(봉원사 주지)은 "영산재 의식은 나라안의 크고 작은 근심스런 일이나 경사스런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만 성취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여법



영산재(靈山齋) 시연회가 현충일인 6월 6일 태고종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된다.

하고 장엄하게 봉행돼 왔다"며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순국선열 및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재보존회는 그동안 영산재의 예술 성과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0여년동안 프랑스, 벨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영산재를 시연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승 제2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승, 전 30권중 25권 출간! 운문, 장경, 경청선사, 부 상좌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탐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글썽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이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 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